



日本人들 4명 중 1명이 간장에 이상

일본인 4명 중 1명은 간장에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은 2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본 병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일본 병원회의 임상 예방 의학 위원회는 지난 해 일본 전국 의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던 약 1백78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조사는 전국의 주요 '인간 도크' 시설 6백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受診者의 7할 가량은 40~50대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도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18%에 불과, 10명 중 8명은 성인병 또는 성인병 예비자로 나타났다.

성인병과 관계가 깊은 비만, 고혈압, 혈당치 이상 등에 관한 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간기능 이상으로 수진자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비만 17%, 혈당치 이상, 高中性지방, 高콜레스테롤 각 13%, 고혈압 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간장 이상은 남성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상 예방 의학 위원회는 이같은 조사 결과와 관련 "간장에 이상이 많은 것은 음주가 원인임에 틀림없다"고 밝히고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술을 마시고 싶은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에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장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소득자 에이즈 이환 때 사망률 높아

빈곤이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생존율을 낮추며 저소득자로서 에이즈에 걸린 남자는 고소득 환자보다 10년 안에 죽을 위험이 63%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말했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마틴 섹터교수가 이끄는 캐나다 연구팀은 3백64명의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1982년부터 10년동안 조사 연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착수할 때 조사대상자 중 2백34명은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양성반응을 나타냈으며 1백30명은 그뒤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실린 그들의 보고서에서 저소득의 남자가 고소득의 남자보다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저소득의 남자는 조사가 끝난 1993년 12월말까지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63% 높았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저소득을 연간 1만 캐나다달러(미화 7천5백달러) 미만의 소득자로 규정했다.

연구기간 10년동안 조사대상자 가운데 1백69명이 에이즈로 발전했고 1백35명이 죽었다.

日후생성, 10대 여성 중절 대책 마련

일본 후생성은 10대 미성년 여성들의 임신·중절이 급증함에 따라 연구반을 설치, 젊은 여성들의 성 실태 조사 및 임신 방지책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후생성은 이에 따라 각국에 조사서를 발송, 세계의 성 현상 조사와 함께 10대로 임신한 국내 여성의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사회적인 지원 태세를 확립하는 자료로 삼을 방침이다.

후생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중절 건수는 해마다 감소, 지난 55년의 약 1백70만건에서 지난 해에는 4분의 1인 약 38만7천건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20세 미만의 중절 건수는 지

난 70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증가 현상을 보여 지난 91년에는 전후 최고인 3만3천2백86건을 기록했다.

그후 에이즈(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 등을 위한 피임 기구의 사용 증가에 따라 20세 미만의 중절 건수가 약간 줄었으나 지난 해에도 2만9천7백76건으로 여전히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성이 설치하는 연구반은 앞으로 일본 전국 10개소의 산부인과 시설을 이용해 10대 소녀가 임신에 이르는 경위를 비롯 임신에 대한 의식, 출산 및 중절 후의 상황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20대 여자 대학생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후생성의 한 관계자는 “10대의 중절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도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피임 방법 등의 지식을 잡지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를 토대로 행정 기관이나 自願단체 등을 활용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임신’에 대한 방지책 등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

